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

## 비위생적인 지역에서 살고있는 질트 리코모나스

여성의 음부는 항상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콤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내고 있는데 세균, 곰팡이, 기생충들이 침입하게 되면 분비물이 점차 증가하여 대하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또 빈번히 감염되는 것이 질트 리코모나스다.



주 경 환

대하, 또는 냉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질 분비물증가의 원인은 크게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감

염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여성의 음부는 항상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콤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내고 있는데 만약 앞서 말한 세균, 곰팡이, 기생충들이 침입하게 되면 분비물이 점차 증가하여 대하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사람들

에게 많이, 또 빈번히 감염되는 것이 질 트리코모나스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백인 여성에게 있어서도 40~50%가 이 질환에 이환된 경험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것들을 보아도 종합 병원 산부인과를 찾아온 여성에게서 10~20%가, 그리고 대하증을 이유로 하여 병원을 찾는 여성의 30~35%가 질 트리코모나스에 감염되었다고 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비위생적인 지역에 있어서는 질트리코모나스감염증의 이환율도 높고 드물지 않게 신생아나 영유아에서도 검출된다고 한다.

질트리코모나스는 여성에게만 감염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원인은 대부분 질트리코모나스감염의 경우 여성에 있어서는 심한 대하증을 동반하는 소양감, 작열감, 불면증, 성감이상, 배뇨곤란, 요도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혹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가벼워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성에게 있어서 트리코모나스증의 대부분은 자연 치유되므로 비노기과적으로 보아서 그다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남성 트리코모나스증의 중요성은 여성 질트리코모나스증의 감염 및 재발에 큰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질트리코모나스증은性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리코모나스에 의한 질염을 앓고 있

는 여성의 남편 80~90%에서 역시 트리코모나스를 발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양성인 경우 이 질환의 치료가 곤란하여 재발하기 쉽다는 점, 매춘부에 있어서 트리코모나스의 감염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보고들은 이 질환이 일종의性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인 접촉 이외의 방법으로 감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혹자는 양변기가 여성을 감염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욕조에서 감염된다고 하기도 하며, 산모가 트리코모나스에 감염되어 있을 때에 태어난 아기가 산모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설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체외로 나온 트리코모나스는 40℃ 이상에서는 즉시 죽어버리며 주위가 건조하거나 햇빛이 직접 비추어져도 곧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비성교성 감염경로에 의한 감염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감염경로에 있어서는 역시 성행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트리코모나스가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대하, 외음부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며 악취가 나게 된다. 진찰소견으로는 질벽과 외음부의 점막에 암적색의 점상 반점이 생기며 더러는 바르토린스 선에 염증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이 질환의 진단은 여성의 경우 질도말표본을 작성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트리코모나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단하는데 남자에게서는 아침에

## 이런 기생충을 아십니까?

받은 소변의 요침사를 검사하거나 전립선을 맞사지하여 얻은 분비물, 또는 정액을 검사하기도 한다. 거둬지는 말이지만 남성보균자의 색출이 이 질환의 예방이나 재발방지, 확산의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남성이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는 매우 드문 것 같다. 이것은 남성에게서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기인하지만 배우자(여성)에게서 대하가 심하게 나고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하면 남성도 비뇨기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 250mg을 1일 3회씩 10일간 복용하거나 750mg을 한번 복용하거나 하는데 트리코모나스 감염치료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배우자의 감염이 있을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섹스 파트너의 동시 치료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트리코모나스증 재발의 악순환은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트리코모나스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트리코모나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글 앞부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서 대하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은 크게 나누어 세균, 곰팡이, 기생충을 들 수 있다. 트리코모나스는 이 중에서 기생충 질환의 범주에 속한다. 세균이 단세포의 식물이라고 한다면, 트리코모나스는 단세포의 동물 즉 원충류에 속하는 기생충이다.

흔히 기생충이라고 하면 회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의 소위 선충류나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와 같은 흡충류 그리고 유, 무구조충같은 조충류의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위의 것들은 여러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의 기생충이고 트리코모나스는 한개의 세포로 되어있는 단세포의 기생충, 즉 원충류의 기생충이다. 트리코모나스는 세포의 끝에 한개의 긴꼬리와 여러개의 작은 꼬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흔들어서 이곳 저곳으로 헤엄쳐 다니며 우리 몸의 글라이코젠을 소모시킨다. 질내에서의 트리코모나스의 글라이코젠 소모는 정상적으로 자라는 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질내 산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정상적으로는 질내에 살지 않는 다른 세균의 침입을 조장하여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회충, 요충, 간디스토마, 유·무구조충 등의 피해는 대부분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정부나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도 그간 적극적인 검변사업, 치료사업, 계몽사업등으로 이제는 기생충 없는 나라를 그려볼 시기도 되었다. 그러나 트리코모나스와 같이 대변검사가 진단의 방법이 되지 못하는 기생충 질환은, 특히 바로 이 트리코모나스처럼 남에게 말하기 힘든 기생충질환은 각자 이 질환의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해 나가며 예방에 힘써서 전 국민의 보건향상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 교실·의박)